

동운아나텍 아날로그기술 융합시킨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본격 진출

동운아나텍은 아날로그 반도체 전문 팹리스기업으로 2006년 설립된 이후 휴대폰 카메라의 자동초점을 잡아주는 AF(Auto Focus) Driver IC를 개발, 현재 전세계 M/S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수량만 해도 올해 예상 10억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World Class 300기업에 선정되는 등 수 많은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동운아나텍은 아날로그적 환경(거리, 위치, 명암, 진동, 소리 등)을 측정 또는 센싱하여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로의 변환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분석 및 센싱과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센서) 시장으로의 진출을 검토해 왔다.

메디칼 시장자료에 의하면 당뇨 진단키트는 13조 시장에 이른다. 또한 당뇨병자, 전당뇨자, 미확진자를 포함하여 전세계 당뇨관련 인구는 10억명에 달하며 일반 건강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시장규모가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동운아나텍은 2016년부터 당뇨 진단기기 시장 진출을 위한 개발에 착수했다. 아날로그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대 시장 중 바로 당뇨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당뇨 진단의 경우, 현재는 채혈하기 위한 고통과 공포를 수반한 혈액채취 진단방법이 표준으로 상용화 되어 있다. 그런데 기존에 없던 방식인 타액을 통해 고통과 공포가 없는 진단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이는 기존 당뇨 진단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소아당뇨, 전당뇨자, 미확진자, 일반인 등까지 적용시장이 확대되며 새로운 혁신이 될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동운아나텍은 드디어 올해 8월, 2년 전부터 시작한 당뇨진단 사업에 대한 첫번째 단계인 타액기반 바이오리셉터 및 전극소자 개발을 통해 타액기반 진단 스트립과 리더기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채혈대비 **100배** 더 민감하게 타액 내 당을 측

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진단기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타액을 이용한 진단 디바이스 및 이를 이용한 분석 방법'에 대한 국내특허(제10-1883412호)를 등록했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해외 특허도 출원한 상태다. 글로벌 당뇨진단 시장을 타깃으로 한 포석이다.

동운아나텍은 후속 단계로 올해 안에 서울대병원 등 국내병원을 통해 전임상 시험시작을 목표로 하고, 해외 유명병원을 통한 임상실험도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9년엔 국내외 정부 인허가 추진과 함께 글로벌 진단-헬스케어 기업을 통해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현황 >

출원국가	출원 및 등록번호	출원/등록
미국	15/766,270	출원완료
일본	2018-514435	출원완료
유럽	17861188.5	출원완료
중국	2018071300349170	출원완료
한국	10-1883412	특허등록

(사진) '타액을 이용한 진단 디바이스 및 이를 이용한 분석 방법'에 대한 특허증